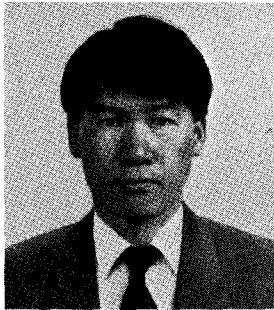


「發明富國」으로 가는 길



鄭榮春

〈발명가·코리아스엔 대표〉

90년대 이후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 과학과 기술은 시대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자체의 질과 양의 면에서 또 변화속도에서 前世紀 과학기술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18~19세기에 걸쳐 확립된 과학적 발견과 이론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응용 과학 기술은 수많은 발명으로 이어지고, 그 발명을 창도해낸 개인과 국가는 부의 축적을 통해 기업형성 또는 강국으로서의 이상을 유감없이 실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테크놀러지 파워(technology power)시대의 국제사회와 현대 과학기술의 분위기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시스템화된 조직적 연구프로젝트가 많고, 둘째로 국가간 치열한 과학기술우위 확

보 경쟁으로 이기주의적 통제관리속에 있으며, 셋째로 과학기술의 산업경제와 정치적 영향력 속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상호공존공영의 수단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정보의 전달·활용이 매우 빨라졌으며, 인류의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발명의 기회가 증진되고 있다.

정부는 70년대부터 과학기술 立國을 내세우고 과학 기술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적인 홍보를 요란하게 해왔고, 기업은 기업대로 세계 몇번째 또는 최초 개발 성공이니 계획중이니 하는 등 매우 의욕적인 홍보에 열을 올려온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기초 과학 기저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현장서의 제품기술은 한계에 이른듯한 느낌이다. 해마다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문전시회를 가보면 전시된 제품들의 핵심기술과 알맹이는 거의 일본이나 선진외국기술이 태반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정도가 더해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와 교육수준, 그리고 옛 조상들의 뛰어난 창조적 문화전통을 갖고 있다.

이후 줄곧 과학기술진흥을 부르짖어 왔지만 구체적인 처방과 노력이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간직할 수 있는 교육 목표와 방법의 개혁이다.

초·중학교까지는 세계청소년 과학 학력평가에서 1등할 만큼 뛰어나지만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고 상급교육을 받을수록 교육과정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엔지니어와 독창적이지 못한 학자만 양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청소년기의 우수한 과학적 자질과 창의력 계도를 위해 초·중·고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과학 전람회도 개최하고 전국 학생 우수발명품 전시회도 개최하여 최고상에

상당한 상급과 대통령상까지 수여 하지만 만일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소질을 인정받기 위해 이 일에 열중했다간 오늘날은 대학입시경쟁에서 낙오하기 십상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과학기술과 발명품의 잔치에 적극 참여할만한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나 과학기술대 명문대학일수록 참여도가 극히 낮거나 아예 관심 밖이다. 전시회가 시시해 보인다고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작품구상 능력과 응용력이 없어서일 것이다. 독일을 비롯 선진국에서는 고급과정의 과학기술관련 전공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기발한 아이디어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이론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감탄할만한 작품을 출품해보이기도 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살아있는 과학·공학도들과 청소년들의 실력과 꿈이 현실로 이어지고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도와 공학도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두뇌와 소질, 그리고 열정을 그대로 수용 발전시킬수 있는 교육목표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의 이상실현은 창의력을 통한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발명활동과 노력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학자가 발명특허를 얻고 돈버는 일에 연구노력과 열정을 쏟는것을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선진국일수록 많은 공학도와 학자들이 산업계와 연계하여 신기술 창조에 앞장서고 특허등록권리 확보로 국익보호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와 공학자들의 올바른 육성과 그들의 참여이다.

19세기 꿈의 발명광시대와 같은,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 16~17세기의 연금술사들과 같은 환상이 오늘날의 발명품토는 아니다.

발명은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무엇인가 극히 필요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우연이건 오랜 실험과 고뇌의 연구에서 비롯됐건 그 결과는 상당한 꿈을 이루는 일과 같기 때문에 다분히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발명가에게는 학자나 기술자보다는 더 극적이고 실제적인 새로운 문명을 예고하고 창조적 성향을 띤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보다 창조적인 분위기가 살아있을때 많은 발명이 잉태되고 꽃피울 것이며, 비단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

신 간 안 내

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1.2.3

규격 : 국관 250면

가격 : 각권 4,000원

판매 : 본회 발명특허 자료판매센터

(전화 551-5571~2)